

## SAMC | LAW REVISION

## 1.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운영 강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는 밀수출 우려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에 따라 밀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Read More](#)

## 2. 관세조사 시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서류 보관 금지

앞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납세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조사를 종료하면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Read More](#)

## 3. 수출용 원재료에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도입

국회는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에는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직접 소요량을 계산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과다 환급신청에 따른 관세청의 사후 추징을 줄이고, 과소 환급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 TRADE TREND

## 1. 화재유발 부정 수입물품 기획단속

관세청은 부정수입 물품으로 인한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7.11월부터 12월 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 하여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적발하였다. 적발 물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가상화폐 채굴기'로,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Read More](#)

## 2.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발표된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금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와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Read More](#)

## 3. 수출입 신고필증, 올해부터 전자문서로 교부

관세청은 수출입신고필증의 보관과 활용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종이서류로 교부하던 신고필증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PDF)로 직접 교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입신고필증은 위·변조 우려로 종이서류 신고필증만 출력을 허용했다. 이에 관세사는 신고필증을 전하기 위해 종이필증을 출력 및 스캔 후 E-Mail로 송부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해 진본 인증용 '전자문서 시점확인필'을 전자날인해 전자문서로 직접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EFTA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하세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1월 9일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는 EFTA측 인증수출자의 최근 번호체계를 안내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이슬란드는 등록번호 4자리와 함께 IS인증년도 두 자리를 표시하고, 노르웨이는 국가명 두 자리와 인증년도 두 자리, 등록번호 아홉 자리를 기재하면 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인증번호 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와 함께 인증년도 4자리를 기재해야 한다.

[Read More](#)

## 2. 한·EU FTA 발효 후 교역규모 20%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유럽연합 간 교역규모는 확대되어 2017년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대비 20.7% 증가했으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

[Read More](#)

## 3. 제2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18.1.31.(수) ~ 2.1.(목)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개정협상에서 한국은 최근 미국의 셰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에 대한 부당함을 강하게 제기한 한편 미국은 자동차 부문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의 쟁점과 요구사항이 더욱 명확히 엇갈린 셈이다. 제 2차 협상 마지막 날에도 양국은 10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향후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